

남부대 이윤주 금

전국사격 女大 50m 소총복사

이윤주(남부대 3)가 제3회 경호실장기 전국사격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이윤주는 17일 서울 태릉사격장에서 열린 여자대학부 50m 소총복사 개인전에서 587 점을 쏴 강남대 이현정을 2점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윤주·정숙현·박은영·김은혜(남부대)는 6대 50m 소총 복사 단체전에서 1천745 점을 명중시켜 은메달을 따냈으며 김혜지·남궁재성·최은혜·김아름(남부대)은 여대 25m 권총 단체전에서 역시 은메달을 획득했다.

또 김혜지·남궁재성·동보라·김아름(남부대)은 여대 공기권총 단체전에서 1천110점을 쏴 동메달을 따냈으며 여자일반 이보나(우리은행)도 트랩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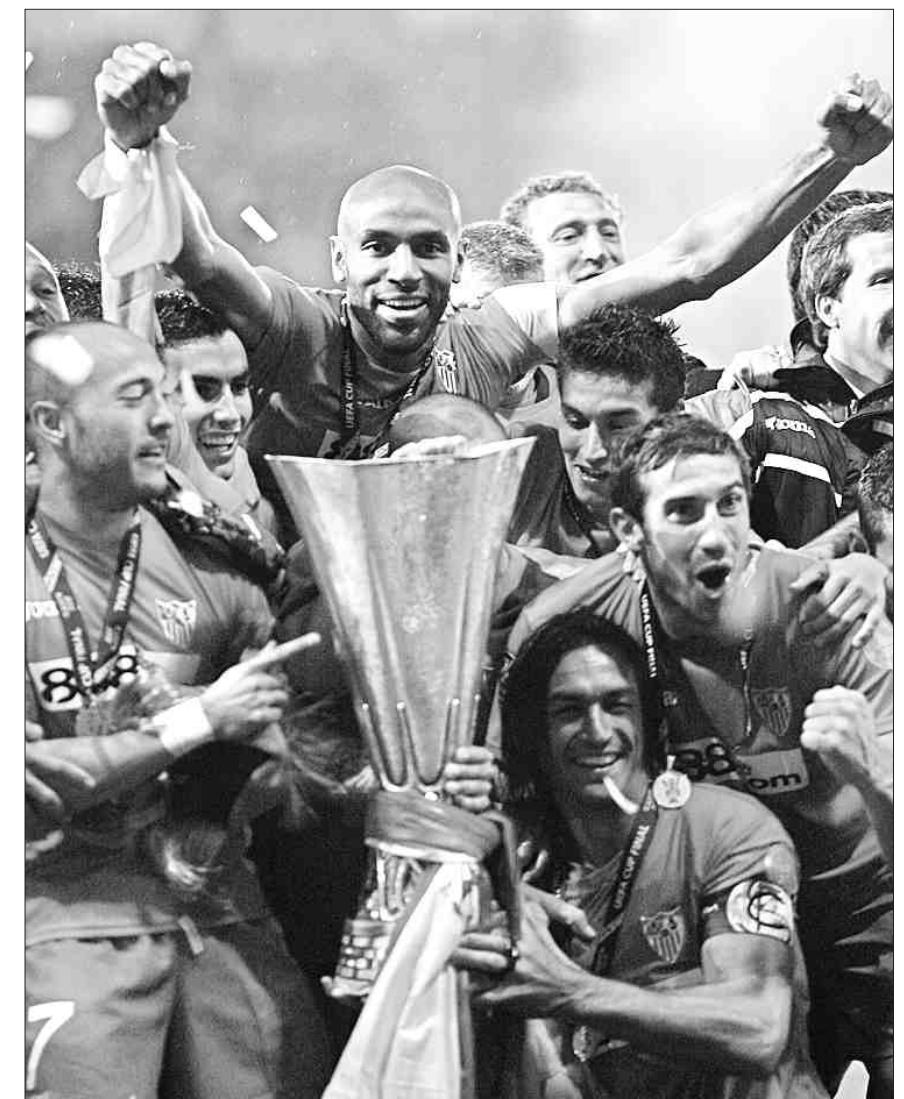
김찬미(전남체고 3)는 여고 공기소총 개인전에서 499.6점으로 대회신기록을 세웠으나 강원체고 정은혜가 500점을 쏴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6일 오후(현지시간) 예멘의 수도 사나의 알리 무하산 알무라이시스티디움에서 열린 2008 베이징 올림픽 아시아축구 2차 예선에서 한국대표팀이 경기 전반 예멘 애세르 바사예의 슛에 골을 허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페인 프로축구 세비야 선수들이 17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햄덴파크에서 열린 같은 프리미어리가 소속 에스파뇰과 2006~2007 UEFA컵 결승전에서 승리한 뒤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광실업고 오준석 금
전국태권도 남고 폐더급

오준석(영광실업고 3)이 제9회 광주 5·18 민중항쟁 주도기념 전국태권도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오준석은 17일 광주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남고부 폐더급에서 학생과 이범유를 누르고 우승했다.

나규호(전남체고 2)도 남고부 라이트급에서 서둘제고 김효진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서리(전남체고 1)는 여고부 라이트미들급에서 금메달을 따냈으며 우스미(국제고등학교)도 여고부 미들급에서 역시 금메달을 획득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베어벡호 ‘벤치 멤버 실험’ 실패

올림픽 축구 지역예선 예멘전

백업 요원 5명 투입…0-1 패

벤치 멤버에게 기회를 주겠다던 베어벡호의 실험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팀 베어벡 감독이 이끄는 한국 올림픽축구대표팀은 16일(한국시간) 예멘과 치른 2008 베이징 올림픽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조별리그 F조 5차전 원정에서 전반 41분 역습 상황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0-1로 패했다.

베어벡 감독은 13일 예멘으로 출발하면서 “그동안 못 뛰던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공언을 했고, 이날 예멘전을 맞아 예

선 4차전까지 주로 벤치를 지키고 있던 선수 5명을 선발로 투입하는 실험을 단행했다.

베어벡 감독은 중앙 수비를 맡아온 김진규(전남) 대신에 김태운(성남)을 투입하고, 오른쪽 측면을 맡았던 김창수(대전)를 왼쪽으로 보낸 뒤 박희철(포항)을 오른쪽 윙백으로 출격시켰다.

또 부상으로 빠진 이승현(부산)의 오른쪽 날개 자리에 백승민(전남)을 내세웠고, 한동원(성남)과 김승용(광주)에게 안타깝게 결승골을 내주고 말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필더의 역할을 맡겼다. 하지만 해발 2천300m 고지대 탓에 숨가쁘고 더운 기후와 유통불통한 그리운드 때문인지 제대로 조직력을 갖추지 못한 포백(4-back)에서 문제가 터져나왔다.

한국은 전반 40분 미드필드 지역 중앙에서 이뤄진 예멘의 역습 상황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이요한(제주)의 태클 저지가 제대로 막혀들지 않으면서 크로스를 허용했다.

최전방으로 투입된 불을 감민수(전남)가 저지하려 했지만 함께 중앙 수비를 맡고 있던 김태운의 수비 복귀가 늦어지면서 쇄도 하던 예멘의 공격수 알리 알타람에게 안타깝게 결승골을 내주고 말았다.

한국은 전반 40분 미드필드 지역 중앙에서 이뤄진 예멘의 역습 상황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이요한(제주)의 태클 저지가 제대로 막혀들지 않으면서 크로스를 허용했다.

최전방으로 투입된 불을 감민수(전남)가 저지하려 했지만 함께 중앙 수비를 맡고 있던 김태운의 수비 복귀가 늦어지면서 쇄도 하던 예멘의 공격수 알리 알타람에게 안타깝게 결승골을 내주고 말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세계청소년월드컵축구 공인구

스포츠용품 전문업체 아디다스가 2007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 세계청소년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사용될 공인구 ‘팀가이스트 L/F’를 공개했다.

한국, 페루·코스타리카·토고와 한조

U-17 청소년월드컵 축구 조추첨

한국이 8월18일~9월9일 국내에서 열릴 2007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세계청소년월드컵축구대회에서 페루, 코스타리카, 토고와 한 조에 속했다.

FIFA는 17일 오후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진행한 대회 본선 조 추첨식에서 개최국 한국을 A조 시드

국으로 가장 먼저 지정했고 대륙별 안배에 따라 같은 조에 속할 팀들을 추첨한 결과 아프리카의 토고, 남미의 페루, 북중미 코스타리카를 차례로 배정했다.

한국은 전통적인 강호들을 피한 데다 유럽 팀과 만나지 않아 비교적 무난한 조에 속한 것으로 평가된다. FIFA 랭킹 51위인 한국과 같은 조의 코스타리카는 52위, 토고는 66위, 페루는 77위로 모두 FIFA 랭킹이 상대적으로 낮은 팀들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국민공인중개사

한 011-635-7939, 010-3114-6103
(두동읍 무등도서관서거리 농협맞은편 2층)

땅

●정비 공장부지 600평
상당지역 35m 도로집 평당 270만원

●수인구 상업지역

240평 평당 55만원 대로변

●생일동 310평 상업지역

20m 도로 평당 390만원

●골프연락 부지 8,000평

자연녹지 복구 평당 50만원

●펜션부지 설진강 5,000평

전원주택부지 평당 1,000평

●제1종주거지역 1,000평

평당 100만원 도로집

●담양 일아 150평 평당 110만원

●관리지역 임야 7000평

단지 평당 10만원 전입료 900만원

●오피스텔부지 300평

전나후원에서 6~7분 도로 평당 175만원

●과수원 모자기능 그린벨트 임야

1,800평 낙향 경기도 15년도 만으로 있을

상남회관이스에서 10분 거리 평당 150만원

●23억 종교시설 연수원 신비타운부지 120평 건물 50평

●전원주택지 고사고원, 광주일부근 700평

●전기차 충전소 10분 거리 700만원

●전기차 충전소 10분 거리 700만원</